

서화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전시

김세원 | 202-4호 서화2실 |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략 1만 8천점 가량의 서화류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소장품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화류 소장품은 전시실에 설치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상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유물관리부 수장고의 제어된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특히 회화의 경우 족자, 서책, 서화첩, 편화, 액자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장고에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전시 효과 제고와 상태 보전을 위하여 수장고 보관을 위한 휴지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화류 소장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전시와 보관에 용이하도록 각 형태에 맞는 장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장황裝潢(장지裝池)은 용어와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서화류의 장황된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양식에 맞추어 포장됩니다.

회화 중에서 벽에 걸어 위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는 족자, 가로로 길게 옆으로 펴고 마는 형태는 횡축橫軸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회화는 화면을 말아놓은 상태의 크기에 맞추어 개별 오동나무상자를 이용해 포장합니다. 출입문이나 벽면에 넓게 거는 형태의 편액扁額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뽕뽕한 종으로 상자를 만들거나 나무틀에 한지를 바른 액자틀 형태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보관 및 운송을 위하여 포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폭의 편화를 연이어 연결하여 장황한 것은 병풍은 잘 포개놓은 형태 그대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뽕뽕한 종이상자로 감싸거나 병풍 크기에 맞춘 주머니를 이용하여 개별 포장합니다. 이러한 서화류의 포장은 보관 시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취약한 지류 소장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림1. 액자류 보관 상태



그림2. 전적, 서첩류의 보관 상태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7)

정현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쿠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트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변경의 삶, 아스타나 무덤 출토품

이태희 | 307호 중앙아시아실 | 19:0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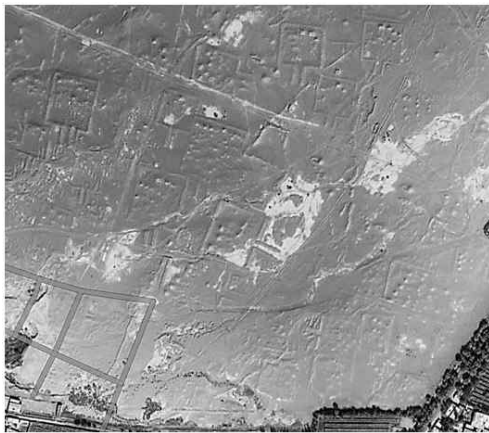


그림1. 아스타나 무덤(위성사진)

투루판은 타림분지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로 중원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간선도로 상에 있습니다. 또한 텐산 산맥을 관통하여 초원지대로도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오랫동안 투루판의 중심지였던 고창성 북쪽에는 아스타나(-카라호자) 무덤이라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무덤은 3세기부터 8세기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기가 넘습니다. 투루판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여 비나 눈도 대개는 내리는 도중에 사라집니다. 그런 까닭에 무덤 속 시신 및 부장품이 부패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무덤의 주인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3세기 후반 오호五胡로 대표되는 북방 민족이 대거 남하하면서 중국인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화북지역이 전란에 휩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해 변경으로 이주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늘면서 투루판은 중국인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위北魏가 하서지역에 있던 북량北凉을 멸망시키자 북량의 왕족이 둔황 등지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고창에 정착하면서 중국인은 기존 주민을 몰아내고 투루판 분지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고창국高昌國’이란 국가를 건설하고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오아시스 등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이 무렵, 아스타나 무덤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하에 방을 만들고 지상과 긴 경사로로 연결한 형태의 무덤으로 변화합니다. 두 번째는 일족 무덤이 등장합니다. 무덤의 이런 특징은 당唐 태종太宗이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이곳에 서주西州라는 직할령을 설치해 직접 다스리기 시작한 뒤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스타나-카라호자 무덤 출토품을 소개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화백자의 멋

서유리 | 304 · 305호 분청사기 · 백자실 | 19:00~19:30

철화백자는 태토 위에 산화철(Fe_2O_3) 안료로 문양을 그린 후에 시유施釉하여 번조한 백자입니다. 철화기법은 시문이 간편하고 비교적 쉽게 안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부터 백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철화백자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된 무렵부터 관요가 민영화되는 시기까지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도자사에서 철화백자가 유행했던 시기는 17세기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연이은 전쟁으로 경제 상황은 피폐해졌고, 명과 청의 교체기의 혼란은 고급 안료였던 청화안료(回回靑)를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산화철을 안료로 이용하는 철화백자에 제작자와 수요층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철화는 이미 조선 초기 상감백자와 분청사기의 장식안료로 이용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철화안료는 표현이 자유로우며 안료의 수급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다른 시문기법에 비해 과감함이 돋보입니다. 백자의 태토 위에 그려진 갈색 혹은 검정색의 철화 안료는 바탕과의 대비가 돋보이며 왕실용 백자의 경우 도화서 화원의 필치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화원들은 안료의 농담이나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작되어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정취를 뽐내는 작품들도 있고, 철화안료 자체의 거친 맛을 살려 자유롭고 활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철화의 자유분방한 멋과 독창성은 조선백자의 하나의 특징을 이루며, 표현의 다양성은 도자 세계를 한껏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림1. 끈무늬 병, 그림2. 끈무늬 병의 바닥
높이 31.4cm,
보물 제1060호



그림3.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높이 40cm, 국보 제166호



그림4. 구름 용무늬 항아리, 높이 36.1cm